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

김 양 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6페이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매개 민족국가들이 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다. 경제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고 매개 나라의 경제건설 환경이 각이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경제건설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자기 나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경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징표이며 자립경제의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특징지어준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다같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그의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공통성을 가지지만 그것은 경제의 각이한 측면을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서로 구별된다.

경제의 자립성은 주로 여러가지 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면 경제의 주체성은 경제가 얼마나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하는가 하는 측면을 주로 반영한다.

경제의 자립성은 경제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가를 특징지어준다면 경제의 주체성은 경제가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는가 하는것을 특징지어준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경제의 각이한 측면을 반영하지만 그것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고 통일되어있다.

경제의 자립성은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며 그에 의거함으로써만 더욱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경제의 주체성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데 있는 동시에 그를 위한 필수적조건을 이룬다. 그리고 주체성도 자립성과 밀접히 결합되어 실현됨으로써만 더욱 강화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물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경제토대를 축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야 생산물에 대한 여러가지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을뿐아니라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경제토대를 마련할수 있다.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자립성이 없는 경제는 나라와 인민의 늘어나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며 자기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주체성이 없는 경제는 자기 나라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 인민의 자주

적요구도 실현해나갈수 없게 된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경제만이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 민족적번영과 륜성을 담보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그리고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경제만이 나라와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력강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이미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자립적경제체제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확고히 담보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이라는것은 경제건설의 전략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힘을 집중하여야 할 과업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양양을 일으키자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때문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경제건설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전제로 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이다.

그것은 우선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사회적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경제부문이기때문이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은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동력과 연료, 자재를 생산하며 수송을 보장하는 기본부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력, 석탄, 금속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며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빨리 추켜세워 필요한 전력과 석탄, 금속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동시에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경제의 기본토대를 이루는 부문이기때문이다. 전력, 석탄, 금속자재와 철도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민경제부문이란 없다. 어느 경제부문이나 할것없이 절실하고도 가장 많이 요구되는것이 전력, 석탄, 금속이며 철도운수이다. 전력, 석탄, 금속자재만 충분히 생산하고 제때에 날라다 주어도 경제토대의 효과적인 리용은 물론 인민경제의 현대화도, 기본건설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으

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고 앞세우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본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는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근본문제로 들어쥐고나가야 한다.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발전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나라 전력생산에서 기본은 수력과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이다. 풍력과 태양에너지, 조수력 등 자연에너지연구개발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지만 현재 전력생산비중은 낮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수력을 기본으로 하는 대규모의 자립적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면서 자연에너지에 의거하는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힘을 넣는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전력생산능력만 최대한 리용하여도 긴장한 전력문제를 많이 해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금속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늘어나는 금속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이미 주체철생산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철을 우리 나라 강철공업발전의 종자로, 자립적민족경제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식 제철, 제강법을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하시였다.

현시기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향과 방도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주체철생산방법에 의하여 철강재생산을 급속히 늘어 철강재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의 기초공업부문인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쳐야 한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에서 원료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화학공업의 주체성을 보장하며 화학공업을 다방면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화학공업의 원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유사정과 관련하여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생산이 보다 중시되고있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앞으로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타 공업에서 리용할수 있는 기간은 매장량과 채취상태로 볼 때 대체로 50년정도로 보고있지만 석탄을 화학공업에서 리용할수 있는 기간은 2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하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여 메타놀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보수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촉매의 주체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공해를 없애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지켜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2018년 4월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양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오늘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철두철미 자기자신을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발전시켜 물질적재부를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창조할수록 윤택해지는것은 인민생활이다.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한 생활은 응당 우리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안아와야 한다.

나라들사이의 경제적연계가 밀접해지고 경제협력이 확대발전하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발전의 하나의 추세이다. 국제무역과 금융, 국제투자가 확대되고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존존성이 심화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제국주의자들은 경제가 《세계화》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가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확대, 높은 효률을 통한 수익의 증가, 소비자들의 수요의 충족, 문화교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세계경제를 번영시킨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를 자본주의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사회적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족문화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뿐만아니라 개별적나라들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발전도상나라들을 략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세계화》론의 주장자들은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반대하고있다.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는 한 매개 나라에서 경제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

게 된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 문제는 민족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세계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매개 나라 민족경제들의 총체가 세계경제이다. 따라서 매개 민족경제의 발전은 세계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적자립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민족경제는 세계경제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족경제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발전하는 경제라면 세계경제는 민족경제의 총체를 이루는 개념이다.

세계경제는 전세계를 단위로 발전하는 경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개 나라를 단위로 발전하는 민족경제들의 총체를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세계경제는 민족경제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속에서 발전하는 경제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가 경제발전의 통일적인 단위로 될수는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경제의 《세계화》를 주장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매개 나라의 민족경제를 저들의 부속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동적인 궤변이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경제는 민족경제를 단위로 하여 발전한다. 정치와 경제는 통일되어있고 국가주권의 범위안에서 경제발전의 단위도 규정되는것이 필연적이다. 다민족국가인 경우 한 나라안에 여러 민족이 있어도 그것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하나의 국가주권이 행사되면 그것을 단위로 민족경제가 형성된다.

매개 나라들이 경제건설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해나가면 민족경제들이 발전하고 민족경제들의 총체로서의 세계경제도 발전해나갈것이다. 경제적자립은 세계경제발전에 대립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계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경제적자립은 세계경제발전이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를 배격한다.

력사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잘살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길은 오직 우리의 자원과 힘에 의거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경제건설을 해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주적삶을 굳건히 지키며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활적이며 중차대한 사업이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요구대로 나라의 경제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벌려 오늘의 난국을 뚫고나가는 과정이 곧 자립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자립성, 주체성